충남도립대학교 합격수기

12기 김지현

필기

전 3년 간 수험생활을 하면서 바로 직전 시험에 최종 불합격을 하고 이번 시험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3년 간 경험을 바탕으로 느낀 것을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필기에서 떨어진 시험들은 기출문제집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기본서, 여러권의 문제집이나 모의고사 등 공부할 책을 늘렸을 때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직전 시험과 이번시험에선 경찰학 요약집을 제외하곤 기출문제집 이외에 모든 것들을 과감히 없앴습니다.

그리고 윤황채 교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처럼 암기를 많이 해야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끙끙 대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계속 회독을 반복하면 90% 이상은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에 너무 힘쓰지 않고 암기를 위해 회독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평소엔 다른 것들을 공부하다가도 시험전 2달 간은 기출문제집을 반복 회독한 것이 제가 한 거의 모든 공부입니다.모의고사는 3회분 미만으로 풀어 시험 직전 문제 푸는 감만 익히며 최신 판례도 3회 정도 보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학교를 다니며 공부할 땐 각 과목 교수님 수업도 열심히 들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시험 과목 중 경찰학에서 범죄학 관련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다른 수험생들은 깊게 공부하지 않는 분야지만 전 학교 과목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훨씬 유리했고 그 덕분에 붙었다고 생각합니다.

체력

체력은 많은 사람들이 말 하는 것처럼 평소에 조금씩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게 한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에선 필기 합격과 체력 시험 사이의 텀이 짧아서 평소 준비한 사람과 안 했던 사람의 차이가 컸습니다.

하지만 26년 부턴 체력시험이 남녀 통합으로, 또 패스제로 바뀌기 때문에 체력시험에 대한 부담감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달리기, 간단한 웨이트 트레이닝 등 조금씩 꾸준히 한다면 체력시험은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

면접은 학원은 따로 가지 않고 면접 스터디를 구해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말도 잘 못하고 비언어적인 부분에서도 좋지 않은 습관들이 나와 고치는 데 어려움을 겪는데 연습하다 보면 충분히 고칠 수 있으니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필기시험 합격 했을 때 곽영길 교수님게서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시며 전문가 특강도 진행해주시는데 그 때 많은 것들을 질문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질의응답을 통해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답변 할 때 자신의 솔직한 경험에 빗대어 느낀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어낸 경험을 말하다 보면 말도 잘 안나오고 면접관이 추가 질문을 했을 때 답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 아르바이트, 학교 생활 등의 경험을 잘 정리하여 생각해 둔다면 어떤 질문에도 잘 대처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면접장에서 말이 꼬여 답변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땐 그냥 얼버무리지 말고 마지막 순번에 다시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고 하면 면접관분들도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기회를 주시니 아깝게 발언 기회를 날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이 15분 정도의 시간으로 사람을 점수로 구분하긴 힘들고 15분 이라는 짧은 시간만으로도 판별해 낼 수 있을 정도로 공직에 부적합한 사람을 골라내는 정도로 쓰이고 있다고 제가 즐겨 보는 한 공무원 시험 강사가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보단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